

제968호

(1994.8.2 등록번호 다-3802호)

2013년 9월 29일(주일)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다시 '말씀' 으로, '십자가' 로, '사명' 으로

10월 9~11일 양재, 온누리 부흥축제 '절대제자' 이재훈 목사, 프랜시스 찬, 데이비드 플랫 주강사

온누리 부흥축제가 10월 9일(수) 양재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시작된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부흥축제 '절대제자'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확인하고 재헌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흥축제는 최근 미국에서 듣고 싶은 설교가로

손꼽히는 프랜시스 찬 목사와 데이비드 플랫 목사를 초청해 총 7번의 강의와 3번의 저녁 부흥 집회로 진행된다. 이재훈 목사의 말씀 선포로 축제의 막이 오르고, 첫째 날은 데이비드 플랫 목사, 둘째 날은 프랜시스 찬 목사, 셋째 날은 변갈아 주제 강의와 저녁부흥집회 메시지를 전한다. 특별히 둘째 날 오후에는 제자로서의 삶을 실

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두 강사 삶의 리얼 스토리를 풀어내고, 셋째 날 오후 특강에는 김춘근 장로가 '헌신'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이재훈 목사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한 번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재헌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2011, 2012년도 부흥축제 주강사로 섬긴 프랜시스 찬 목사의 열정적인 강의와 <레디컬>의 저자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플랫 목사의 강의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참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등록은 서빙고와 양재 목회지원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할 수 있다. 10월 6

일까지 3만원, 당일등록은 4만원이다. 특별히 공휴일(10/9)이 포함되어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하루 당일등록(2만원)도 받는다. 행사당일에는 교회와 교육문화회관 주차가 가능하며, 교회는 3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교육문화회관 주차 차량은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주차권을 구입(10,000원)해 사용 할 수 있다. 행사 본부 측은 축제기간 동안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해 대중교통과 양재역과 교육문화회관에서 운행하는 셔틀 이용을 부탁했다.

문의 02-3215-3355-6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러브소나타 앞둔 군마 벌써 '부흥열기'

러브소나타 군마를 40여 일 앞둔 가운데 군마 현지는 벌써부터 부흥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러브소나타 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세자키그리스도교회에서 열린 큐티세미나에 이례

적으로 많은 인원인 59명(14개 교회)이 참석했다고 한다. 교회가 적은 군마 지역에서 열린 세미나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러브소나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이

다. 러브소나타 한국본부도 지난 22일 론칭행사를 갖고 본격적으로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참가신청: 02-749-1149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지구촌 이웃들에게 전하겠습니다"

4,951명 약정행사 참여

지난 9월 15일 국내 10개 캠퍼스와 30개 해외비전교회에서 일제히 실시된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4,951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연 11억6천7백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NGO 더 멋진 세상 CEO 김광동 장로는 성도들에게 "보내 준 귀한 사랑

을 고맙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했다.

앞으로도 NGO '더 멋진 세상' 홈페이지나 전화로 약정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271-2248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Love Sonata

기도제목

- 9월 30일(월): 말씀 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소서.
- 10월 1일(화): 일본 성도들에게 러브소나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주소서.
- 10월 2일(수): 행사에 2000명의 일본인이 참석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 10월 3일(목):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 주소서.
- 10월 4일(금): 가스펠 나이트와 CEO포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 10월 5일(토):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도록.
- 10월 6일(주일):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일시: 10월 6일

장소: 국내 10개 캠퍼스

후원방식: 작성서 작성 후 제출(CMS)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삼상 25:1~13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분노가 넘쳐납니다. 사회에 분노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과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분노는 우리를 불살라 버리기도 하고, 분노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분노할 때 내린 결정이나 행동은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분노와 함께 살아갑니다.

분노의 세 가지 유형

침 잉그레함 목사님은 분노에 대한 반응을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 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폭발형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유형입니다. 상황, 대상에 상관없이 분노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폭탄이 터지면 사상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폭발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억압형입니다. 분노하지 않은 것처럼 부정하는 유형입니다. 분노를 표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분노를 숨기는 것은 영혼이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한 분노는 우리 안에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방향으로 끓어 터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유형은 누수형입니다. 분노를 조금씩 흘리는 것입니다. 분노를 분노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누명을 씌운다든지, 보이지 않게 비방하는 유형입니다. 분노의 대상에게 직접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수형 사람들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모든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바꿔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진실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왜곡해서 비

방하고, 모욕하고, 분노 대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누수형입니다.

우리는 분노에 대한 세 가지 유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폭발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때로는 분노를 흘리면서 말입니다.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나발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던 다윗에게도 분노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놀랍게도 폭발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면 불의한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이 분노하게 된 배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광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당시 광야에는 강도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강도와 이방 민족들에게 늘 당하고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일행들은 당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다윗 일행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때가 되면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마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음식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양털을 깎는 시기는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음식들을 다윗 일행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일행들이 보호해주던 사람 중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각 천 마리씩 거느리고 있는 거부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나발의 양들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자 다윗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열 명의 소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열 명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 명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요청을 나발이 거절합니다. 거절한 것도 모자라 다윗에게 모욕까지 줍니다.

크게 분노한 다윗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길 들었다.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10~11절).

나발의 말은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르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양떼를 지켜주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또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윗이 누구냐고 묻는 것도 모순입니다.

나발의 행동은 배은망덕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주인을 버리고 도망 다니는 그런 배신자들이 있다고 하던데’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반역자나 배신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나발은 사울의 시각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모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하여 그들은 칼을 찡고 다윗도 칼을 찡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갔고 200명은 짐을 지키며 남아 있었습니다.”(13절).

“다윗은 내려오면서 이미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그의 재산을 지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건만 그제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21~22절).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발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면 25장에 나타난 다윗의 분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수천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했던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옷자락을 제거한 것만으로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원수를 목전에 두고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던 다윗입니다. 사울과 비교해 보면 나발은 어떻습니까. 나발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거절했고 모욕했을 뿐입니다. 24장에 나타난 다윗의 반응과 25장에 나타난 다윗의 반응이 대조적입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자제력과 인내력을 보여준 다윗이 나발에게 이토록 민감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긴장 풀고 기대한 대가 ‘분노’

여러분, 큰 시험에 잘 견디는 사람이 작은 시험에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약한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엄청난 존재 앞에서는 인내하며 큰 시험을 잘 이겼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시험도 아닌 작은 시험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종류가 자신의 상처와 연결될 때 분노가 폭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울이었습니다. 작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나 가치관과 언행을 보면 영락없는 사울이었습니다. 만약 나발이 왕위에 올랐다면 영락없이 사울과 같았을 것입니다. 또 사울이 나발의 위치에 있었으면 영락없이 나발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나발과 사울은 상통하는 사람입니다. 위치와 재산과 권력이 다를 뿐이지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큰 사울에게는 이겼는데 작은 사울에게는 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는 늘 긴장을 하면서 대비를 했지만, 나발에게는 긴장하지 않고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긴장을 하고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긴장하지 않고 기대를 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준 큰 시험을 잘 견디면서도 가족이 하는 한 마디 말

에는 비수를 맞은 것처럼 피 흘리며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습니 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보다 자존심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객관적인 원인 찾기

다윗은 나발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했습니다.

분노는 이차적인 감정입니다.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분노는 중요한 싸인입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면 모욕을 당한 것에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자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자신을 모욕하자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습니 다. 이러한 원인들이 다윗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신에게 준 공격보다 더 큰 공격을 하기 위해 항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찾아왔던 사울의 공격을 참았던 그가 이번에는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게 된 객관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분노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회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노하는 원인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내려놓고 분석 하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복수의 칼을 차고 나발에게 달려가고 있는 다윗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종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복수하러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아바가일에게 전했습니다.

나발의 종은 왜 나발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의 아내 아바가일에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아마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나발의 집에 일이 일어날 때마다 종들이 나발이 아닌 그의 아내 아바가일에게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나발에게 이야기해보자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아내 아바가일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래야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빵 200덩이, 포도주 두 부대, 손질한 양 다섯 마리,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 적지 않은 음식입니다. 음식양이 열 명 정도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양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모든 일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 다.

악한 사람의 철없는 말을 담지마라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 다. 그 이름은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여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당신이 피 흘리지 않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철없이 내뱉은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뢰하고 받아들일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상처가 되겠지만 어리석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은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가 많은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람이 실없이 한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욕의 출처를 보십시오. 나발이라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했던 말이라면 개의치 마십시오. 못들은 척 하십시오. 무시해도 좋은 말은 무시하는 것이 분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리석고 악한 말을 내뱉고 쉽게 잊어버리

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 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28~31절).

다윗의 소명과 정체성을 생각하면 나발에게 복수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바가일은 자신의 가족보다 다윗의 미래를 더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다윗의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아바가일의 지혜로운 권면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의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해서 뉘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바가일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거룩한 소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큰일을 그리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사람,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분노가 폭발하고, 때로는 억누르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흘리고 있을 때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분노가 파도치는 태풍같이 일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끌어 오르는 분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노가 주님 임재 하심으로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yje



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 주셨습니다.”(25절, 26절 상)

아비가일의 말속에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바가일의 메시지 속에는 어떻게 분노를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아바가일이 다윗에게 준 첫 번째 조언은 누가 모욕을 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모욕한 사람은 나발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바보입니다. 아마도 그가 했던 행실을 종합해서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나발은 하는 일이 어리석고 악했는데 어떻게 큰 부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내 아바가일 때문일 것입니다.

는 사람의 말을 버리십시오.

사명과 미래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소명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를!”

회복축제 후속 ‘치유의 임재’ 진행

2013 회복축제 ‘왕의 임재’ 후속 프로그램으로 ‘치유의 임재’ 세미나가 열렸다. 치유의 임재는 15일(주일) 오프닝예배를 시작으로 20일(금)까지 사라 그론-콜린(Sarah Groen-Colyn), 지노&세스리 바카로 부부(Gino&Cesli Vaccaro), 정은임 선교사,

토미 브릭스(Tommy Briggs), 노먼 아놀드(Norman Arnold)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거룩한 그분 ▷하나님의 임재연습 ▷내면 성찰 ▷이미지와 상징 ▷의지의 치유와 강화 ▷구속된 상상력 ▷바알로부터의 자유 ▷자기용납의 마력 ▷용서를 받기 ▷

기억의 치유사역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6명의 강사진은 강의와 침묵, 하나님의 임재 연습, 중보기도에 집중하며 “인간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다. 자기중심적 치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통해 내 삶에 그리스도가 실체화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애 묵상학교 개강

“침묵기도 훈련과 거룩한 독서 등 더 깊은 묵상을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는 시간, 예수님의 생애 묵상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26일(목)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예수님의 생애 묵상학교’의 첫 수업이 진행되었다. 안수집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생애 묵상학교’에는 70여 명이 등록했으며, 10주 동안 복음서와 침묵기도, 거룩한 독서, 본당 실습과 과제 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첫 시간은 찬양으로 시작해 전회복 권사

대표기도, 강의, 교제 나눔 및 식사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

이종실 목사는 ‘침묵기도와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를 주제로 침묵기도와 거룩한 독서를 하는 자세한 방법과 순서 그리고 큐티와 거룩한 독서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덧붙여 이 목사는 “이 수업은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실제로 체험하는 훈련의 자리다. 10주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채우며 신앙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대청, 길공동체 임시에배장소

10월부터 3주 동안 한성대학교 수시모집 사정상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날짜: 10월 6, 13,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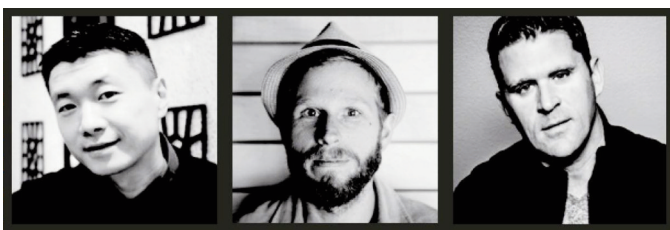
장소: 명동 라루체

예배: 오후 6시

순모임: 오후 3시

“가장 연약한 자들을 교회가 품어야 합니다!”

패밀리라이프 투데이 출연, 에디 번 목사의 메시지



영어예배(OEM)를 담당하고 있는 에디 번 목사가 지난 8월 30일(금) ‘패밀리라이프 투데이(FamilyLife Today)’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아사역의 필요성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전했다. 패밀리라이프 투데이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목적의 비영리 기독교 단체의 방송으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개국했다. 총 24개 언어로 방

송되며 청취자가 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에디 번 목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진행자 밥 레핀(Bob Lepine), 패밀리라이프 대표 데니스 레이니(Dennis Rainey) 그리고 ‘Hope for Orphans’를 이끌고 있는 폴 페닝턴(Paul Pennington)과 나눈 이야기를 모아봤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밥: 한국에서의 입양은 어떤 것입니까?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에디: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교회 안이던 밖이던 입양은 그리 환영받지 못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부모가 없다면 고아이든지 입양아이든지 안타깝게도 그들을 향한 많은 선입견들이 있게 됩니다.

데니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입양의 개념은 받아들여지지만 실제 고아들의 삶 속에 들어가기나 위탁보호를 하고 아이들 입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참 답답하네요... 자 이제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교회(영어예배부)와 고아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에디: 한국에 수백 수천의 고아들의 있고 또한 수백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추구하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한국인이 품도록 도전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외국인 신분으로 살고 있는 공동체를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일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국에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는 동안 입양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었

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국의 변호사들과 그와 관련되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며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국인들(교포)이 한국에 사는 동안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한 한국분이 국내입양절차를 통해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분들로서는 이 국내입양절차를 통해 입양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혁신입니다. 또한 이것은 일 년 통계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외국인 신분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 참 종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한국 동역자들과 나눌까 그리고 왜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고 성경적 쟁점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성경말씀을 통해 고아, 과부, 아비 없는 자들에 대한 큰 맥락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취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더 취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더욱 깊이 소중한 자들입니다. 만약 힘없고 약한 자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 지역에서 힘없고 약한 자들인가?”

데니스: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교회의 훌륭한 이야기들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가정들은 궁극적으로 고아들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나요?

에디: 한 미군 가정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고 한국여성고 결혼했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낳아진 아들과 딸, 두 명의 자녀가 이미 있었습니다. 입양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가정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이것이 복음의 하나라고 설교시간에 나누었을 때 그들은 적어도 입양에 대해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 때 각각 10살, 12살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이끄심을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입양기관과 고아원 몇 곳을 방문해 봅시다. 그리고 누가 가장 연약한 자인지 직접 봅시다.” 그들은 누가 가장 연약한 자들인지 보고 싶어 했고, 두 명의 여자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매거나 친척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10살 12살 정도였습니다. 고아들은 나이가 많아 질수록 입양의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들 중 한

아이는 혼혈이었습니다. 혼혈인 친구들은 더 많은 편견을 갖게 되고 입양의 기회는 더 줄어듭니다. 그들은 입양기관을 통해서조차 더 적은 기회를 갖게 될 이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입양하겠습니다.’ 입양절차를 밟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달 전이 되어서야 그 여자 친구들은 정식으로 그들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미국으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모든 시간 안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한국으로 보냈고 두 아이들이 그들의 합법적인 딸들이 되었을 때 다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니스: 고아들을 위한 국제적인 투사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에 함께해서 고아와 입양에 대해 문화를 바꾸게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onnuri.org)

*영어대화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다소 오역과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 장례식장에서 맺힌 구원의 열매

故유운자 권사 시누이 이영학 성도 세례



가족들의 축복 속에 세례를 받는 이영학 성도.

한 영혼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 다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귀한 열매가 맺혔다. 대전 온누리교회 이은형 집사(중서공동체)의 어머니 故유운자 권사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9월 4일 대전 평화원 장례식장

에서는 故유운자 권사의 천국환송예배가 열렸다. 장례 기간 동안 온가족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은형 집사의 아버지 이현모 집사가 여동생인 이영학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후 고인의 주검을 화장하는 화장터에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가 영접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은 교회에 문의해 이 씨의 세례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가 가족들과는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 살고 있고, 나이가 많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날 김관수 목사(대전 중서공동체)의 집례로 화장터에서 세례식이 진행됐다. 가족들은 모두 이 씨에게 손을 얹고 축복했다.

이은형 집사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고인의 죽음을 통해 또 하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전했다.

대전 온누리교회 측은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에 젖었던 장례식이 한 영혼의 구원 소식과 함께 축복과 은혜로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감사사를 전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고3 수험생 위한 특별한 장

육사 입학 고등부 선배 이예리 자매 초청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시간 ‘고3 특별한 공감’ 이 지난 8일(주일) 대전 온누리교회 고등부에서 열렸다. 이번 시간은 대입 준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교회에서 특별 게스트로 초청한 사람은 지난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대전 고등부 출신 이예리 자매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입시 이야기를 나누며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어 윤길중 목사(대

전 온누리교회)의 기도와 격려의 메시지가 전달됐고, 학생들은 자신의 비전과 기도제목을 적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파워웨이브 교사인 김현주 성도는 “함께 예배했던 고등부 선배의 경험담이라 학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3 특별한 공감’은 오는 10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평택

하반기 개강을 알리는 말씀과 큐티



평택 온누리교회 하반기 사역이 뜨겁다. 지난 8일(주일)에는 공동체 개강예배가 열렸고, 10일(화)에는 화요여성예배를 개강하며 새학기를 힘차게 열었다.

공동체 개강, 김하중 장로 초청

“크리스천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대사로 사십시오.”

지난 8일 교회 본당에서 공동체 개강예배가 열렸다. 이날 예배에는 전 주종대사로 <하나님의 대사 1, 2>를 발간한 김하중 장로가 특별강사로 초청됐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간증하며 “주종대사로 있을 때 한 사람을 위해 20년 동안 기도했던 결실을 맺었다. 쌓아놓은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찾아올 것. 통일을 위해서도 이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박철웅 목사(평택 온누리교회)는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과 회개를 주셨다”며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 후에는 저자 사인회와 교제와 나눔을 위한 순모임이 진행됐다.

화요오전여성예배 개강

지난 10일에는 화요여성예배가 개강했다. 평택의 여성예배는 짧은 설교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큐티를 나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예배 팀장 김미숙 집사는 “화요여성예배를 시발점으로 전교인이 모두 큐티하게 되길 바란다”며 “여성예배가 주일에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큐티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예배 후에는 출산을 앞둔 산모와 태아를 축복하는 베이비사위 파티가 열렸다. 하반기 평택 화요여성예배는 ‘나눔의 업그레이드(깊은 나눔)’에 집중한다. 박철웅 목사는 “상반기에는 삶을 나누는 데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나눔의 시간을 늘리고 내용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 전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수원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놀이터 열렸다

30명의 영아들과 함께 7주간 진행

수원 차세대 꿈아이놀이터(이하 꿈터)가 가을학기 10기를 개강했다. 지난 24일(화)에는 교회 1층 드림홀에서는 꿈터 1주차 과정이 진행됐다. 이번 10기에 함께하는 영아들은 총 30명(꿈둥이반 8명)으로, 7주 동안 영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와 그룹 모임이 진행될 계획이다.

첫 주 수업은 자유놀이(말씀 낚시)를 시작으로 찬양, 율동, 소그룹(북아트) 대그룹(진해지기) 활동이 진행됐다. 이날 말씀은 김종아 목사(수원 차세대)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를 주제로 전했다. 김 목사는 밧줄을 통한 상황극으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음을 설명했다.

꿈터는 주중 예배 놀이학교로, 24~40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예배와 영역별, 주제별 다양한 교구, 대그룹, 소그룹 활동 및 야외활동이 준비



꿈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풍성한 시간을 보낸다.

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다. 김은하 전 도사(수원 꿈터 담당)는 “이번 과정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의 영역을 통해 영아들이 하나님을 만드신 자연과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기 꿈터는 5주 동안의 수업과 함께 4주차(10/15)에는 소풍, 마지막 주인 7주(11/5)차에는 드림 세리머니가 열린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지상명령 따라 제자된 삶 살라”

수원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수원 여성사역에서 무릎선교기도학교 가을학기 과정을 오픈했다.

지난 13일(금) 오전 10시 4층 비전홀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다. 이날 초대된 강사는 전 중앙아시아A국 선교사이자 현 GO(Global Operation)대표인

주누가 선교사. 그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기다림’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주누가 선교사는 선교사역을 감당하며 되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 등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무릎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제자된 삶을 살 것을 권면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무릎선교기도학교는 Acts 29 비전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곳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한조에 5~6명씩 16개 그룹을 이뤄 초청된 강사의 말씀을 듣고, 권역별로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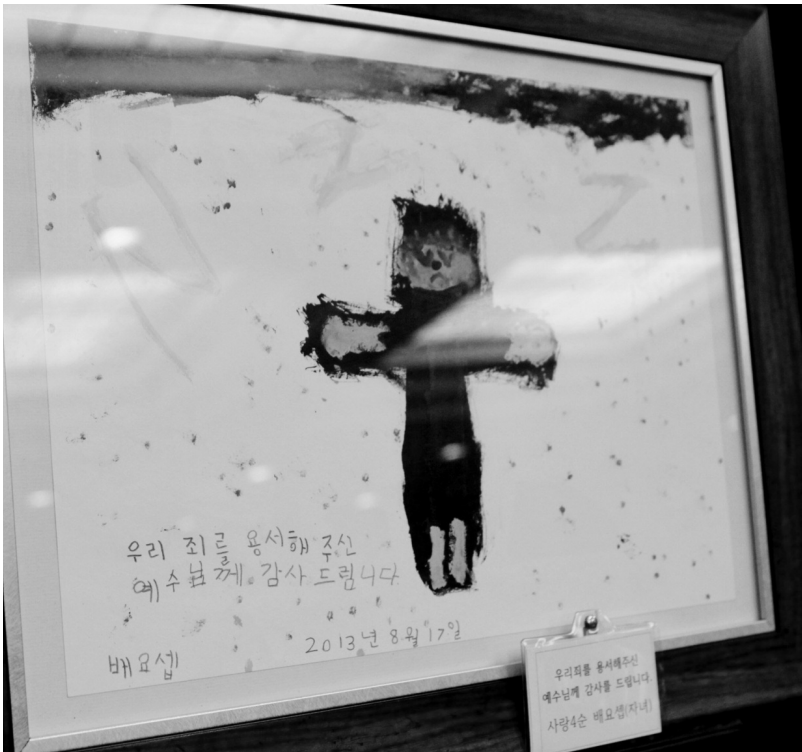
강남A공동체, 아웃리치 시화전

〈최우수작〉

예수님 전상서



어린이 사진전 / 우수작 사랑 4순 배요셉(자녀)



기쁨4순 신정자 권사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이 짧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남은 날 이리 살고 싶습니다.

제 의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를
소중히 지켜주며 사는 삶 되게 하소서

과장과 포장된 언행을 버리고 진솔함으로 살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은
아름다운 기억의 잣대로 누구도 재려 말게 하소서

사랑의 줄로 사방을 훑어도 결림이 없는
매일의 삶 되게 하소서

경험의 고집과 조급함, 틀에 갇힌 사고로
답답함 없이 상황의 분별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나 설치고 앞장서기보다
은밀한 곳 찾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삶의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보다
가슴으로 안고 가는 것이
감사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신
주님을 만나는 새벽을
마지막 날도 달려가게 하시고
정신이 혼미해져 고운 만남들을
모른다 하는 안타까움 없는 그런
건강으로 살게 하소서

이 바람들이 제 욕심이라 하시면
주님 뜻 안에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전부였던 주님을 명징하고 또렷한 의식 속에서
그 손잡고 떠나는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iWe를 소개합니다!

“크리스천 가정을 세우는 청년들을 꿈꿨습니다”

■ 인/터/뷰 ■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한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맞아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온누리교회에는 8천여 청년들이 있다. 이중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이 90% 이상이다. 이에 대청에서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커플 매칭 사업 ‘iWe’를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다.

iWe(아이위)는 ‘나(I)’를 ‘우리(We)’로 바꾸어 준다는 의미와 ‘둘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 간다’는 ‘I will walk with you’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 사업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세워갈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대학청년부를 섬기는 멘토들이 결혼 적령기의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기 위해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iWe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4주 동안 강의와 다양한 activity, 교제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결혼 상대 후보자들을 각각 만나 볼 수 있는 ‘iWe투게더’와 지원서와 개인 면담을 통해 후보자를 소개하는 소개팅 형식인 ‘iWe팅’으로 진행된다. 철저한 privacy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모든 지원 과정은 이메일, 문자 또는 개인면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iWe를 기획한 이미지 멘토(여호수아)는 “청년부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서로를 인생의 반역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다. 결혼 정보 회사에 많은 회비를 내고 등록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멘토들이 나서서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끌고 갈 주역이 바로 청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멘토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공감대를 이루게 하시면서 기도를 시키셨다”고 말했다.



‘iWe’를 통해 맺어진 결실

이렇게 10개월을 준비한 끝에 지난 2012년 9월부터 ‘제1기 iWe투게더’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2기를, 2013년 4월에 3기를 무사히 마쳤다. 매기마다 iWe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약 50%가 매칭이 되었다. 아직 ‘결혼’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지만 iWe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 결혼관이 바뀌어 프로그램 수료 후 크리스천 가정을 함께 이루길 결혼상대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 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들, 이성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변화되어 이성간의 관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1월 9일부터 대학청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기도로 지원하며 iWe 4기 사업을 더욱 활기차게 펼쳐갈 예정이다.

■ iWe 4기

일시: 11월 9-10일(1박2일), 11월 30일(2주간)

인원: 각 12명

자격: 형제·30세 이상, 자매 28~34세 미만(교역자 or 멘토 추천서,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회비: 10만원

문의: 이미지팀장(010-5135-7432), iweonnuri4u@gmail.com

“외모보다 성품을 더 중시해”

“연애 경험이 없다가 iWe를 통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보니 좀 더 안정되고 건강한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사실 대부분 형제들이 그렇듯이 이성을 볼 때 외모에 비중을 많이 두는데 iWe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외모보다 성품을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 조승용 형제(iWe 2기)

“상대방과 나와 의 관계 되돌아본 시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기도제목으로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하나님께서 iWe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신앙부터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성품을 먼저 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상대방과 나와 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이호숙 자매(iWe 3기)

“‘공유’의 중요성을 깨달아”

“‘결함’보다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iWe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만났던 자매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에 만났던 자매와 교제하면서 ‘공유’했던 부분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기봉 형제(iWe 3기)

“하나님의 타임스케줄 따라살아요”

부르고, 채우고, 새 길 여는 하나님 만나 한의사에서 선교사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 시대의 성경 선생 되는 것이 사명이자 꿈



류모세 선교사

부드러운 목소리에 힘이 넘치고,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에서 포근함이 묻어난다. 이 사람 누가 봐도 호감(好感)이다. 그의 입술은 오직 말씀, 성령, 예수, 선교 다음 세대를 노래한다.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 성경> 시리즈의 저자로 저명하다. 식물, 동물, 절기, 성전 등을 주제로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성경 선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의사에서 선교사로 변신한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타임스케줄에 따라 살았을 뿐이라는 그의 고백이 은혜롭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심화과정’ 개강을 앞두고 류 선교사를 만났다. 10월 7일 개강하는 아카데미가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였다.

예수 만나 모세 된 이야기

류 선교사는 외아들이다.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가 던진 “성경공부를 해 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심코 ‘Yes’라고 답한 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류 선교사는 한 학기 동안 성경공부를 하고 여름방학에 떠난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때부터 8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들이 한의사로 성장하기를 바란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생긴 것이다. 날마다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을 믿지 않는 부모들이 곁에 볼 수가 없었다.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 급기야 한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역자로 살겠다는 아들의 선언에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다.

“한의사를 포기하고 사역자로 살겠다는 아들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당시에는 가족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진로, 리더십과

의이전 등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확실한 부르심이 필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다지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히 11:24-25).

당시 제가 소속되어있던 선교회에서는 거의 매일 큐티 나눔을 했는데 제가 받은 말씀과 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선포하자 이름을 모세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 이름이 모세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선교 눈뜨게 한 아내와 만남

성경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유진소 목사를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가 제게 한 첫 마디가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로 헌신했어요’예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조금씩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의사에서 선교사로 ... 채워주시는 하나님

두 사람은 1995년 결혼했다. 이스라엘 선교를 가기 위해 한의원을 오픈했다. 그때부터 5년 동안 돈을 모아 2000년 이스라엘로 떠났다. 류 선교사는 이스라엘 히브리대에서 세포생리학(MA)과 약리학(PI)을 공부했다. 여기서 또 한번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한국에서 가져 간 돈이 바닥난 것.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남들보다 빠르게 공부를 마치게 하셨고, 남들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게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공부를 마치는 시간이 남들보다 빨랐고, 장학금도 많이 받게 되었거든요. 공부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불가능이 없었어요.”

열린다 성경 시리즈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

류 선교사의 저서 <열린다 성경> 시리즈의 탄생 비화가 재미있다. 이스라엘의 환경, 시대적 배경, 역사, 문화 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열린다 성경>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등 떠밀림’이었다.

“길눈이 워낙 어두워요.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웃교회팀을 안내하던 선교사님이 스위스로 가버렸어요. 이웃교회팀을 안내할 사람이 없어진거예요. 그때 아내가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고 등을 떠밀었어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고 미음먹고 머리 싸매고 이스라엘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고시 준비하듯이 말이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는 무척 재미있었다고 한다. 메마른 삶에 생수를 붓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대학시절 8년 동안 이어온 성경공부가 뼈대가 되고 재미있는 이스라엘 연구가 살이 되어 ‘이스라엘 전문가’가 되었다.

이재훈 목사와의 만남

이재훈 목사와의 인연으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린다 성경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 이후 이재훈 목사를 통해 2008년 3월 온누리교회에서도 ‘열린다 성경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투데이 제작을 하면서 폐간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이재훈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연구

했던 것과 대학시절 공부한 성경공부 덕분에 성지순례로 생각했던 일정을 ‘살아 숨쉬는 성경공부’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이재훈 목사님께서 뉴저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에서도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를 통해 후원자와 구독자를 찾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투데이>가 폐간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새로운 길, 한국교회를 섬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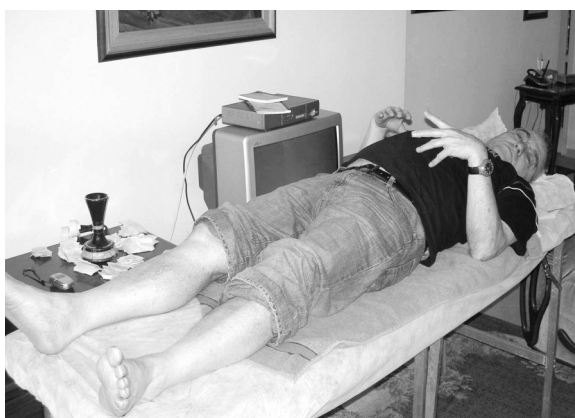
재정, 사람, 사역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던 류 선교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2010년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 돌아보니 이스라엘에서 지낸 10년 동안 한번도 쉬지 못했다. 고민할 이유도, 여지도 없었다. 2010년 9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류 선교사는 아내의 치료가 끝난 후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 주신 길에 순종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신학을 하게 되었다. 대학시절 진로를 고민하던 중 받은 부르심, 이스라엘 선교를 가기 전 받은 부르심에 이어 세 번째 부르심이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올해 12월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노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대에는 올바르게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필요해요. 제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타임스케줄에 따라 그동안의 경험을 모두 모아 한국교회를 섬길거예요. 그것이 저의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현장성이 살아 숨쉬는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이 살아지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 1

‘바로 그 교회의 꿈’

1980년, 연예인교회를 섬기던 하용조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사역을 내려놓고 쉬라는 의사의 권고에 영국으로 떠났다. 영국으로 건너간 후 거의 6개월 동안은 하루 12시간씩 잠을 잤다. 하용조목사는 영국에서의 생활이 “마치 엘리아가 로렐나무 밑에 있었던 시간과 같았다”고 회고한다.

하용조목사는 영국에서 두란노서원과 온누리교회에 대한 그림을 확인하는 중요한 만남을 갖는다. 존스토트목사를 만나면서 알게 된 런던인스티튜트는 두란노서원의 모델이 되었다. 짐그래함목사의 교회에서는 온누리교회의 예배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 조그만 예배당에 입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손을 들고 찬양을 했다. 예배 시간에 제한이 없어 설교도 1시간을 넘었고, 설교가 끝나면 박수를 치며 춤을 추었다. 눈물로 드리는 성찬식도 큰 감동을 주었다.

1983년, 영국에 있던 하용조목사에게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 신동아건설의 최순영 장로와 이형자 사모가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 목회를 해 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한 것이다. 하용조목사 부부는 이 일을 위해 1년간 기도했다. 당시 하용조목사는 한국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고 서빙고 인근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놓고 갈등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 주셨다. 그러나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이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 주셨던 그 교회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도행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2천년이 지난 지금도 가능하다.”

이후, 하목사는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품었고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예수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라는 5가지 목회 방향을 설정했다.

귀국 후, 하목사는 과학원아파트에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소그룹 성경공부는 점차 자신의 집을 내어 놓고 밤늦게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사도행전적 공동체로 발전해 갔다. 그렇게 모인 12가정에게 하용조목사는 사도행전의 교회모습을 지속적으로 전했고, 이들은 점차 사도행전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헌신과 열정이,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 교회’로 자리잡는 초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1984년 귀국한 하용조목사는 과학원아파트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면서 구체적인 온누리교회의 그림을 그려 갔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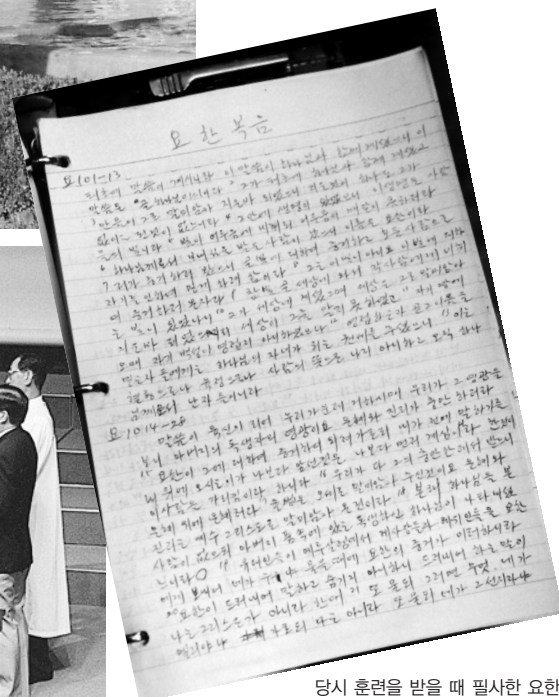
1984년 10월, 한남동 햇불화관(한국기독교선교관에 12가정이 모였다.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신실한 신앙인들은 아니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던 한 부인이 하목사를 만났고, 그 남편의 친구들과 몇몇 부



건강 문제로 연예인교회를 내려놓고 영국으로 떠난 하용조목사. 이곳에서 하목사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짐그래함목사의 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예배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



당시 훈련을 받을 때 필사한 요한복음.



한남동 햇불화관에 모인 12가정은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고 내용 요약, 일주일에 책 3권 읽고 독후감 쓰기 등 다소 힘든 훈련과정을 마치고 2기, 3기 훈련생들을 양육했다.

인들이 모였다. 하용조목사는 3개월간의 성경공부를 제안했고 모두들 하목사의 말을 따랐다.

성경공부는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뽁뽁하게 진행되었다.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은 후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정해 리포트를 제출했다. 또 일주일에 약 3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 그렇게 3개월간의 성경공부는 끝났고 병을 앓던 이는 하나님 나라로 갔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성경공부를 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 후 성경공부 모임은 2기, 3기로 이어졌고, 1기 성경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2기 성경공부 멤버들을 도왔다. 그들이 각각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자, 하용조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일을 평신도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주일에는 아침 10시 성경공부로 시작해 예배와 성찬식, 식사와 교제, 또 다시 성경공부... 오후 5시가 되어야 일과가 끝나곤 했다.

교회를 세우기에 앞서 이들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한다. 바로 그 교회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1년 정도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면서 기도준비한다. 등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얼마 안 되는 멤버들 간에도 신앙의 차이가 컸고 신앙 배경도 천차만별이었다. 그래서 하용조목사는 이제까지의 직분이 무엇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

작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 대신 모두 형제, 자매라 불렀다. 수요일에는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드렸다. 자연히 예배 후에는 교제가 이어졌고, 각 가정의 사적인 문제가 지도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각 가정의 손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교회의 모습과 방향을 놓고 새벽 1-2시까지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1985년 10월 6일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12가정은 다른 한 가정씩 영입하여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갔다. 그렇게 78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준비했다.



온누리M미션

온누리가 보낸 풍성한 한가위

‘Harvest 2013’ 650여 이주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지난 9월 18~20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Hunger for God(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제로 온누리M미션 추석연합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22개국에서 온 650여 이주민들과 128명의 한국인 봉사자들이 참석해 다윗처럼 춤추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네 번의 예배와 나라별모임, 연합세례식, 팀별로 진행되는 레크리에이션(어드벤처), 바비큐 파티 등을 통해 22개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19일(목) 저녁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김영철 목사(온누리M센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 가지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 영혼의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기 위해 울듯이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8~20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열린 ‘Harvest 2013’ 추석연합집회에 650여 이주민들이 참석해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

태국어, 미얀마어 개척예배

추석연합집회의 피날레는 태국어, 미얀마어 개척예배였다. 미얀마와 태국에는 85% 이상이 불교신도다. 복음의 불모지인 태국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온 형제, 자매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에 미얀마어, 태국어예배 공동체를 개척했다.

김창욱 전도사는 “온누리M미션에

는 17개의 예배공동체가 있다. 이 17개의 예배공동체 안에는 현재 20개국 40인종의 이주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늘 태국어와 미얀마어 공동체가 개척을 했다. 이 예배공동체 개척을 계기로 태국과 미얀마 현지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 그곳에서 더 많은 예배공동체가 세워져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산본안산공동체



타국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나기

서남아시아 복음의 등불을 밝히다

산본안산공동체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 동안 남아시아태국에서 뜻 깊은 추석을 보내고 돌아왔다. 김형희 목사(산본안산공동체)를 비롯해 공동체 리더십과 성도 등 4명이 팀을 꾸려 10년 이상 공동체에서 중보해온 선교사를 격려하고 선교사역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된 아웃리치다. 이번 방문에서 김형희 목사는 선교훈련을 받고

있는 현지 신학생들에게 선교의 관점으로 요한삼서를 강의했고, 팀원들은 그 지역의 땅을 밟으며 현지어로 된 전도지를 전했다. 빈민가 학교 사역 현장에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준비해 간 학용품과 여러 가지 선물을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었다.

특별히 이번 남아시아태국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사역이었다.

금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리는 이 나라 문화에 따라 오전 8시 모슬렘 개종자 예배에서 주일예배를 섬겼고, 또 다른 현지 교회 영어예배에서는 찬양 특수를, 저녁에는 세 번째 방문한 현지교회에서는 설교와 간증과 특수를 섬겼다. 그날 밤에는 현지 교회 목사 가족과 선교사 가족, 현지 교회 선교사 후보생들의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온누리 복지재단의 훈훈한 추석나기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입소 어르신들 노래자랑대회 ‘나도야! Super Star D!’를 개최했다. 노래자랑은 참여어르신의 승패를 떠나 어르신과 가족,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송00어르신은 뇌졸중으로 언어장애가 있지만 정확한 발음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온누리요양센터

추석을 앞둔 11일(수) 투호놀이와 윷놀이가 진행되었고, 16일(월)에는 한국전력 자원봉사자 13명과 송편을 빚는 시간을 가졌다. 17일(화)에는 센터 옆에 있는 루소의 숲 어린이집에서 30명의 아이들이 찾아와 소고, 장구, 북, 팽과리를 치며 재물을 부리는 장기자랑을 선보여 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웠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지난 12일(목) 오전 10시부터는 행복나눔단 사랑 뜨개팀이 준비한 음식들을 판매하는 바자회가 열렸고, 오후 1시부터는 본격적인 문화축제가 열려 300여 명의 어르신이 게임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추석 게임행사로는 윷놀이 대잔치, 소원을 말해봐-다트 게임 등이 진행되었다.



#청파노인복지센터

지난 12일(목) 추석을 앞두고 여러 지역 단체들이 청파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재가 어르신들에게 후원품을 전달했다. 따뜻한 사랑을 전달한 단체는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한국주택 금융공사, 나누리 병원 등이다. 추석 선물을 전달받은 임00어르신(79세)은 “명절에 찾아올 가족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어서 큰 위로가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 ‘회복’ 추천도서! ■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스 지음 | 유화자 옮김
| 죠이선교회 | 302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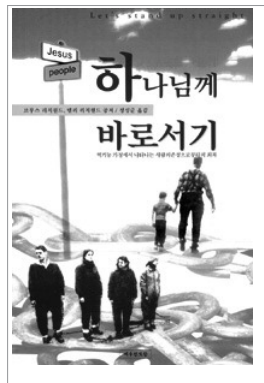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헌신했지만 성숙하지 못해 부정적인 생각과 충동적인 감정, 습관적인 죄에 얽매어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이 책은

은 어제의 상처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명확히 밝혀내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한다.

하나님께 바로서기

브루스 리치필드 지음|정성준 옮김
|예수전도단|270쪽|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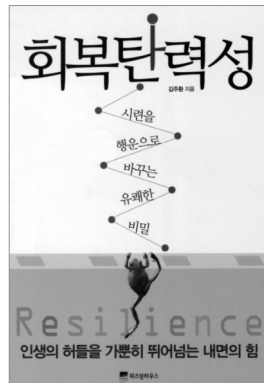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는가. 이 책은 병적인 가족 의존성이 가정의 기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하면 가정

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회복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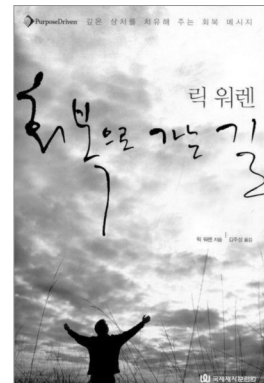
김주환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68쪽 | 13,000원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 없이 극복해나가는 과정인 셈이다. 이 책은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인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회복탄력성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회복으로 가는 길

릭 워렌 지음 | 김주성 옮김
| 263쪽 | 10,000원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가 ‘팔복’에 기초한 여덟 가지 회복 원리를 전한다.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상처와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회복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치유와 자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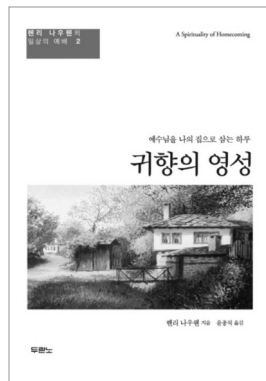
헨리 나우웬의 ‘삶의 영성’



헨리 나우웬 지음|윤종석 옮김
| 두란노 | 111쪽 | 7,000원

제자도를 위한 3단계 영성 훈련은 바로 ‘고독’의 제자도, ‘공동체’의 제자도, ‘사역’의 제자도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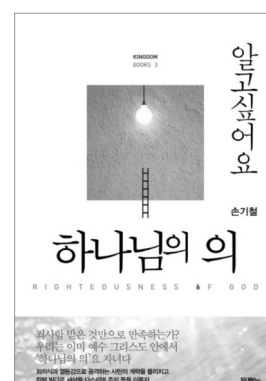
헨리 나우웬의 ‘귀향의 영성’



헨리 나우웬 지음|윤종석 옮김
| 두란노 | 111쪽 | 7,000원

우리와 한 집에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는 훈련을 소개한다. 함께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부르심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상처를 수면 위로 올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영적 지혜를 제시한다.

알고싶어요 하나님의 의



손기철 지음|두란노
| 288쪽 | 12,000원

저자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며 책을 통해 의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실제 하나님과 관계적, 경험적, 실천적 차원에서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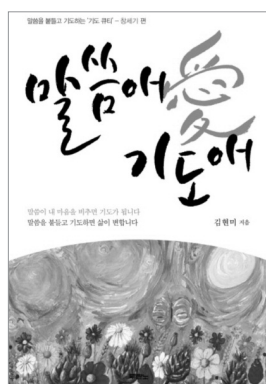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손기철 지음|두란노
| 242쪽 | 14,000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대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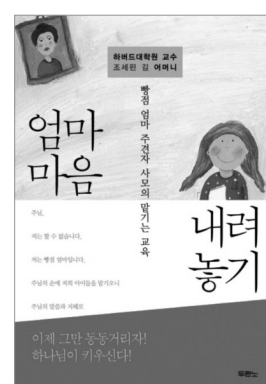
말씀애(愛) 기도애(愛)



김현미 지음 | 두란노
| 240쪽 | 11,000원

말씀에 내면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며 소망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경건훈련 기도큐티를 소개한다. 저자의 창세기 기도큐티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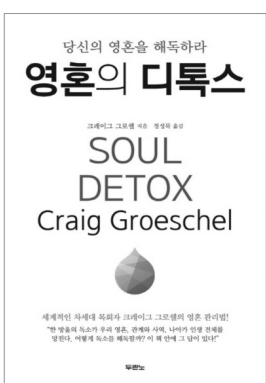
엄마 마음 내려놓기



주건자 지음 | 두란노
| 244쪽 | 10,000원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신앙에 입각한 교육의 방법을 제시한다. 자녀를 위한 엄마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육법을 경험을 통해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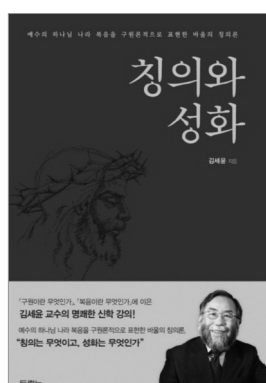
영혼의 디톡스



크레이그 그로셸 지음|장성목 옮김
| 두란노 | 260쪽 | 11,000원

영적 제자리걸음에 빠져있고, 미움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에게는 영혼의 디톡스가 필요하다. 거룩을 막는 치명적 독소들을 진단하고 해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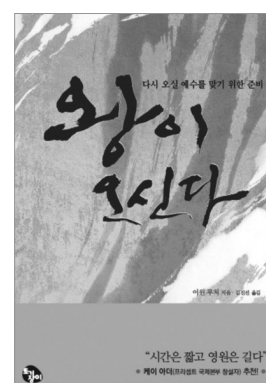
칭의와 성화



김세윤 지음|두란노
| 292쪽 | 13,000원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원론적으로 표현한 바울의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칭의는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인지’ 명쾌하고 풀이했다.

왕이 오신다



어원 루처 지음|토기장이
| 280쪽 | 12,000원

종말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관없이 이 책은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하도록 도전하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도록 격려한다.

“10월 6일 CGNTV와 함께 ‘땅 끝 선교사’가 됩시다”

기획연재

1. CGNTV가 땅 끝에서 만난 사람들
2. 사진으로 보는 CGNTV 24시
3. 보이지 않는 곳에서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4. 10월 6일 CGNTV와 함께 ‘땅 끝 선교사’가 됩시다

땅 끝까지 이르러 열매 맺고 있는 CGNTV

한 사람이 있었다. ‘종합병동’이라 불리던 그의 쇠잔한 육체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걸림 돌이 될 수 없었다. 아마존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롭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부름을 받고 뛰어 들어간 그 사람,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간 그 한 사람을 위해 CGNTV가 (전 세계에서) 방송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고(故)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교회와 함께 보다 강력한 ‘성령행진’을 써내려가기 위해 CGNTV를 세웠다. 그의 비전은 1만8000여 정기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 생명력을 이어왔다. 다음 주일 교회 창립 28년을 맞이해 CGNTV는 더 많은 후원자들과 더불어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후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CGNTV를 볼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CGN 사역은 예수님이 아흔아홉 마리 양을 우리에게 놓고 한 마리 양을 위해 오신 것과 같습니다. CGN은 곧 선교이자 동료선교사입니다.”
(아마존 김철기 선교사)

CGNTV는 외롭고 갈급한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생명수와 같다. 열대 우림의 아마존에서도 깊은 산속의 태국 치앙라이에서도 현지인들조차 가기를 꺼려하는 네팔 서부 코히랄에서도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되고 있다. 고국의 언어로 24시간 방송되는 CGNTV를 통해 선교사 가족들은 영적 해갈과 감동을 함께 느끼고 있다. CGNTV는 선교지 교회의 기도모임 태동의 계기도 제공한다. 네팔인 브린다 머혈전은 1년 전 CGN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된 마리아행진 집회에 참여했다가 현지 30여개 지역교회 사모들의 연합기도모임을 만들게 됐다. 그동안 전혀 상호 교류가 없던 현지 교회 사모들에게 CGNTV가 사랑방이 된 것이다. 브린다 사모는 “네팔에 있는 4000여개 교회 대부분이 미지럽 교회로 주일학교 프로그램 및 양육 콘텐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면서 “CGN의 다양한 콘텐츠는 네팔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고마워했다.

한국 선교사 4명당 1명이 CGNTV로 영적 재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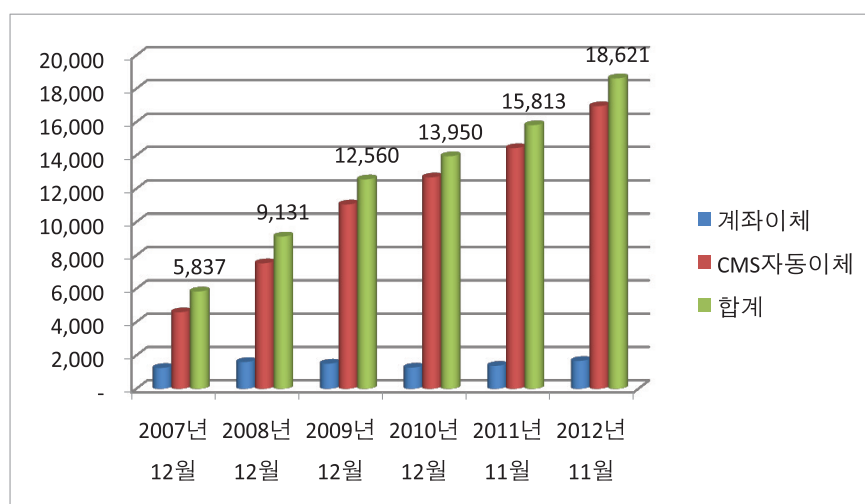


태국 치앙라이 깊은 산속에도 CGNTV 안테나가 설치되었다.



조경근 선교사, 브린다 머혈전부부(한국인 선교사와 결혼한 사모로 CGNTV에서 마리아행진 집회를 보고 사모 연합기도모임을 만들었다.)

연도별 정기후원자 수 추이(2013. 9. 23)



2007년 정기후원 런칭 후 꾸준한 증가추세. 1만 8천명이 넘는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 CGNTV의 사역이 확장되고 선교지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 세계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달려있는 CGN 위성안테나는 6800여대. 이는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 약 2만 4742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다. 한국 선교사 4명당 1명이 CGN을 통해 영적 충전을 받고 있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캐나다 등 174개국에서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일본 CGNTV의 경우, 미디어 선교의 현지화와 교회연합이라는 이정표를 남기고 있다. 일본 전국 47개도현의 교회 네트워크가 완성됐다. 교단 교파의 벽이 높은 일본 목회자들이 CGN 때문에 교류와 일치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전국 1450개 교회, 1600명의 목회자가 일본 CGN에 출연하고

있다. 7년 전 CGNTV 진출 초기, 경계의 시선을 보내던 일본 목회자들이 어느덧 CGN이 ‘친구(Friend)’를 넘어 이제는 ‘가족(Family)’이 됐다고 평가한다. 또한 CGNTV는 목회자가 없는 700개의 일본 무목교회에서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가와 츠쿠미치(아마토 갈보리교회) 목사는 “CGN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디어이자 선물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막힌 담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CGN 프로그램은 일본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 CGN을 시청한 뒤 교회를 다시 찾고 있다”면서 일본교회는 CGNTV에 빛진 자라고 했다.

유재건 CGNTV 대표는 “전 세계에서 들려오

선교지 설치 위성안테나 대륙별 분포

아시아	91.50%
아프리카	2.28%
북미	0.10%
중남미	1.24%
오세아니아	0.94%
유럽	2.83%
중동	1.11%
합계	100%

CGNTV 안테나는 일본 무목교회, 중국 가정교회의 설치 증가로 특별히 아시아권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 중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권에 더 많은 안테나가 설치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는 CGN의 열매는 온누리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맺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CGNTV의 온 직원은 릴레이급식을 하면서 이번 정기후원 행사에서 최소한 신입 후원자 3000명, 증액 후원자 2000명이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CGN은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선교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말씀을 전하는 CGN은 ‘땅끝 선교사’입니다.”

유 대표는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이라며 “이 비전에 함께 해주시는 성도 여러분 역시 ‘땅끝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후원참여를 호소했다.

/ 함태경 CGNTV 기획경영본부장

2013 온누리 부흥 축제
www.onnuri.org

절대적 제자

The absolute disciple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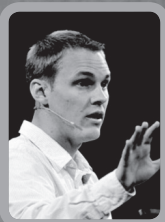
MAIN SPEAKERS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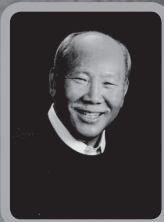


프랜시스 찬
전 코너스톤교회 담임
Multiply 저자



데이비드 플랫
브룩힐즈교회 담임
레디칼 저자

GUEST SPEAKER



김춘근 장로
JAMA 대표

2013.10.9 WED - 10.11 FRI
온누리교회 양재 사랑홀

회비 사전 등록 3만원 (10/6까지) / 당일등록 4만원
입금 하나은행 573-910011-04505 (예금주:온누리부흥축제)
문의 Tel 02-3215-3355~6

목회지원실 또는 로비접수처에 신청서 제출 ▶ 확인증 수령 ▶ 행사당일(9일) 지참
※ 신청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필히 확인 전화 바랍니다.

Onnuri
Community Church